

한국의 歲時風俗과 服飾

- 소설 〈혼불〉에 표현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

유 지 현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의류학전공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 세시풍속의 가치를 재조명함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에 따른 복식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복식문화를 전망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 나라 풍속과 복식에 관한 고증적 묘사로 수 차례의 수상 경력을 지닌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10권 중 세시풍속과 관련된 복식 및 복식행동을 서술한 100여 문장으로 제한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방법과 소설텍스트 의미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절차는 먼저 한국의 전통 세시풍속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혼불〉에 나타난 세시풍속관련 복식 및 복식 행동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식문화와 관련있는 춘계풍속에는 설날·대보름·진새·장담그기·두레·화전놀이풍속이 있었으며, 하계풍속에는 단오풍속이, 그리고 동계풍속에는 야광귀·수야·염발풍속 등이 있었다.

음력 1월 1일의 설날풍속에는 일년동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개인적이며 소극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설빔의 색이나 구성 방법으로 착용자의 연령, 혼인 여부, 신분을 표현하고 있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색상이 중성 계열(색동, 파스텔톤의 색상)에서 난색 계열(황색, 홍색) 그리고 한색 계열(녹색, 옥색, 남색)로 변화되었으며, 저고리의 구성(민저고리와 회장저고리)을 달리하여 반·상의 신분을 차별화 시키고 있었다.

반면, 음력 1월 15일인 대보름 풍속에는 농악놀이·방언·답교 풍속 등이 포함되며, 이들 풍속으로부터는 건강·풍년·운수대통을 기원하는 집단적·개방적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때 착용하였던 복식 및 복식행동에는 성별·연령·신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2월 월중 풍속인 장담그기 풍속과 하계의 단오풍속 그리고 동계의 야광귀·수야·염발 풍속에 나타난 복식 및 복식행동에는 주술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었다.

반면, 2월의 진새풍속과 3월의 두레·농악놀이·화전놀이 풍속과 관련된 복식 및 복식행동에는 계절, 신분과 같은 현실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었다.

설빔풍속과 화전놀이풍속 그리고 진새풍속에서는 복식묘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치장을 위한 현실적 의미 이외에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음력 2월의 진새풍속과 3월의 두레풍속에 나타난 복식 및 복식행동이 천민적 성향을 띠다면, 1월의 설날풍속과 3월의 화전놀이 풍속에서는 양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정월 대보름풍속은 중상적 풍속이라 볼 수 있었다.

또한 설빔풍속이 내적공간 복식풍속이었다면, 화전놀이 풍속은 외적공간 복식풍속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시풍속이 표면적으로는 자연력이나 생산력에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면적으로는 여러 측면의 의미를 내포한 다소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通過儀禮가 인위적이면서 적극적인 만큼 복식 및 복식행동 역시 의례성과 상징성이 강조된 반면에, 歲時風俗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적인 행사로써 통과의례보다는 다소 소극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복식 및 복식행동에 내포된 의미 역시 현실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세시풍속과 관련된 복식 및 복식행위가 지닌 시간성, 공간성, 사회성 그리고 주술성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회학적 또는 비교문화학적 관점에서 한국 복식문화의 변용을 측정하는 변수로서의 활용 가치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